

上臺를 받아 坐像을 모셨다. 下臺의 伏蓮은 複瓣으로서 一面三葉씩이고 各四隅合角은 귀꽃紋으로 彫飾하였으며 側面에는 獸面二軀를 陽刻하였고 上面一段의 받침으로 中臺를 받고 있다. 中臺는 各面周緣에 額을 돌렸고 前面에는 中央의 寶塔을 向하여 左·右 菩薩立像이 供養하는 모습을 陽刻하였는데 塔은 木塔樣式을 具現한 點과 菩薩의 寶冠 및 若干씩 竝인 몸매의 流麗한 彫刻手法이 注目되었다. 左·右 側面에는 雲上界에서 供養하는 菩薩坐像을 前面寶塔쪽을 向하게 彫刻하였으며 後面에는 아무런 彫飾이 없다. 上臺石은 十六瓣이 둘러진 各仰蓮內에 一軀씩의 坐像을 大彫한 特殊한 樣式이라 하겠다. 坐像은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 降魔觸地印을 結하였으나 頸部에도 「시멘트」補強處가 있고 各部彫刻이 磨損되어 威容을 損傷시키고 있다. 頭部의 肉髻, 相好 各面이 分明치 않으며 兩耳는 짧고 右肩偏袒의 衣文은 太線이고 兩肩背面에 두 홈(二處陰刻)이 있음은 光背의 附着處가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한편 이 坐像에서 더욱 注目되며 興味있는 것은 背面과 左右側 各面에 一軀씩의 坐像을 彫刻하여 마치 四方佛의 表現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背面의 坐像은 素髮의 頭頂에 肉髻가 있고 法衣는 右肩偏袒太線이며 三道가 뚜렷하고 頭身光二條線인 바 頭光의 頭部周邊에는 八瓣의 蓮華紋이 있고 身光에는 四葉花瓣이 三處에 配置되어 있는 등 매우 整然한 彫刻手法을 보이고 있다. 이에 對하여 右側坐像은 磨滅이 極甚하여 各部가 分明치 않으며 左側의 坐像도 磨損은 있으나 낮은 肉髻와 右手에 瓶(盒?)을 들고 있음은 뚜렷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石佛 自體에 四方佛을 彫刻한다는가 또는 臺座 仰蓮內에 坐像의 彫飾이 있다가 하는 예는 아직 調査된 바 없는 稀貴한 遺物이라 할 것이다. 年代는 蓮瓣이나 各部 彫刻手法 및 臺座의 樣式으로 보아 高麗代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렇듯 貴重하고 特殊한 樣式의 文化財에 對하여 路邊으로부터의 安全保護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cm) 坐像高 二二〇 肩幅 五五 膝高 十九 背面坐像高 六二
 頭高 三八 胸幅 三二 幅高 八八 肩幅 五五

右側坐像高 六七 上臺石高 四三 中臺石高 四二
 左側 〃 六二 各邊 一〇〇×九三 各邊 五五·八×四六·五
 下臺石高 三五·五 臺座高 一一九·九
 各邊 九〇×八六·五 全高 一三九·九이다.

資料

錦山地方의 支石墓 調査

李 殷 昌

一九六三年 가을에 錦山地方의 支石墓를 調査한 바 이는 支石墓分布研究에 參考가 되는 資料라 하겠다.

1, 浮岩里 支石墓

珍山面 浮岩里의 道路邊(錦山 全州間)에 支石墓가 있는 바 數年前에 破壞하여 現今은 石片 몇개가 남아있을 뿐이다. 部落民의 말을 들어 보면 北方式으로 推定되며 이 支石墓를 「뜯돌」이라 하며 「浮岩」이라는 里名도 이에 따르는 것이라 한다.

2, 撐石洞 支石墓

珍山面 「괴인돌(撐石洞)」部落에 既往에 支石墓가 있었다 한다. 洞民의 말에 依하면 倭政 때 道路工事(錦山—全州間)關係로 支石墓를 破壞하였다는데 現在는 路邊 人家에 그 殘石 數個가 남아 있다. 北方式으로 推定되며 이 支石墓를 「괴인돌」 또는 「명석(撐石)」이라 하고 이에 따라 洞名 또한 「괴인돌(撐石洞)」이라 한다.

3, 石峴洞 支石墓

錦山面 「돌고개(峴洞)」라는 部落西便에 낮은 高개가 있어 鞍形臺地를 이루었는데 이 곳에 長이 三五〇cm 幅이 一三〇cm 厚가 二〇cm 乃至 五〇cm의 盤石으로 된 自然岩 巨石이 있다. 이는 支石墓로 推定되는 바 長軸을 南北으로 取하고 南方式이라 하겠다. 이 地點에서 約 一〇m

註

① 拙稿·本誌 第七卷 第七號(通卷七二) 十三頁 參照

② 朴氏는 今年 四四歲인데 十三歲 때 卽 三〇年前 堂洞里一區 「대밭절터」에서 洞民들이 이곳으로 移安하여 萬人의 信仰佛로 모셨다고 한다.

東南쪽에도 이보다若干 작은 岩石이 있었는데 數年前에 石材로 利用하기爲하여 破壞搬出되었다는 바 이 또한 支石墓로 推定된다. 洞民들이 이를 奇異한 岩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依하여 洞名을 「돌고개(石峴)」라 하였다 한다.

以上記述한 支石墓는 錦山地域 分布에 屬하는 것으로 論山陽村面 支石墓에 一脈 通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考古美術 卍—

◎文化財委 第一分委(一次)

七月 八日 午後 三時 文管局 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 바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斗鐘 金允基 李弘植 黃壽永 金元龍 外 關係官,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永久財産의 保護區域確定(別冊油印物)……東九陵外 十三陵墓區域의 地積 復舊와 測量完了에 따르는 措置인 바 事務當局에 一任處理키로 한다.

二、補修設計檢討

慶州佛國寺境內(紫霞門 泛影樓 齏瓦等)金周泰 監督

閑山島忠武公遺跡……現狀變更不許하고 自體修理 可함

披香亭……解體工事 可決. 洪思俊氏 監督

紹修書院……學求齋 至樂齋 등 補修 可決

佛國寺電氣工事……保留(燈設計提出할 것)

廣州鐵造坐像(德壽宮) 左右手補修 可決

(廣州) 下司倉里 原在 寺址의 臺石回收키로 한다.

嶺南樓 補修……可決 金周泰 監督

佛國寺단장施設……否決(綜合計劃에서 再檢討한다)

三、先史遺蹟發掘……崇實大 申請. 發掘地는 서울市 城東區 역삼동 山二의

一、金정후 所有地로 無文土器가 採集된 바 있음……可決

四、貝塚發掘……釜山大 申請으로 釜山市영도구 東三洞전七五〇 貝塚……保留

五、慶北 星州郡 水洗面 白雲洞 法水寺址의 破損된 石獅 石象 各一點을 慶大

博으로 移管……可決

六、日本返還 遞信文化財를 遞信部에 引渡하되 陳列措置를 한 것

七、貝塚發掘報告書 接受(釜山大의 金海郡 주촌면 농소리 畓 一一三—四 貝塚

發掘 六四·九·十一 可決分)

八、廣州 風納里土城保存問題……保存可能區域을 策定하기로 하고 今月內 李弘

植 黃壽永 金元龍 三委員을 現地出張케 한다.

九、世宗路 紀念碑閣 保存에 관한 報告(地下道工事に 따르는 意見을 서울市에

傳達)

一〇、其他

石窟庵本尊白毫……施工함이 可함(黃委員報告)

浮石寺三層雙塔復元工事着手(黃委員監督報告)

奉化 物野面 北枝里 半跏石像 所在地點에 慶北大에서 石標을 세우고 未發見

上半身을 調査한다.

◎文化財委 第一分委(二次)

七月 十二日 午後 二時 文管局에서 開催되었는 바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斗鐘 金允基 金元龍 李弘植 黃壽永 外 新任의 秦弘燮 襄濂 襄吉基 諸氏와 河局長 以下關係官. 討議件은 다음과 같다.

一、서울都市計劃에 따르는 景福宮牆一部移轉問題……施工이 不可避한 것으로

諒解한다.

二、서울 社稷壇正門移設件……前년에 移建된 事實與否를 調査할 것

三、陶窯址發掘……國立博物館 實施. 全北 扶安郡 봉안면 柳川里 山一〇—一、

山十一(史跡 第六九號 區域內 이영환所有土地) 八月 一日~二〇日 發掘擔

當者 尹武炳 崔淳雨……可決

◎文化財委員會總會(三次)

七月 二十八日 午前 十一時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되었는 데 出席委員은 金庠基 鄭文基 李弘植 金斗鐘 金允基 任석宰 成慶麟 石宙善 崔基哲 姜永善 金天興

洪顯植 黃壽永 任東權 委任委員은 金元龍 李敏載 芮庸海 朴萬奎.

討議案件은 史蹟 景福宮指定區域의 都市計劃에 따르는 變更으로서 宮牆을

안쪽으로 原形대로 다시 쌓을 것과 앞으로 이같은 變更이 不得已할 때는 事前

에 本委員會와 協議할 것을 條件으로 認定하였다(變更區域은 光化門址附近에